

‘끝장 승부’ 통합시장 후보, 세 확장 사활 건다

민, 청년·여성 특보단 구성...김, 지선 관계자 대거 합류 양측 ‘캐스팅보트’ 신정훈 전 후보 자택 방문...구에 총력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에 오른 민형배·김영록 예비후보(기호순)가 지지층 확산에 승부를 걸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예상에 양측 모두 확고한 지지층을 붙잡아 경선 승리를 거두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형배 후보 경선사무소 민심캠프는 결선 승리를 위해 전

남·광주 지역의 청년과 여성으로 구성된 대규모 특보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70여명의 여성 특보들은 민 후보를 “서번트 리더십과 철저한 공적 마인드를 갖춘 인물”, “시민주권 시대를 이끌 책임자”라 평가하며 통합특별시장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년특보단은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이출이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전남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가장 잘 풀어나갈 후보로 민 후보를 꼽으며 합류했다. 이들은 민 후보가 광산구청장 시절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보여준 ‘청년을 정책 주체를 세우는 행정’을 높이 평가하며 경선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등 실질적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영록 예비후보도 결선 투표 승리를 향한 지지층 결집과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김 후보의 선거캠프 ‘탄탄캠프’는 최근 필승대집대회를 열고 경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전한욱 전 신정훈 예비후보

선대본부 총괄특보단장을 비롯해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문상필·김대원·오주섭 전 후보, 서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김영남·서대석·명진 전 후보 등이 자리를 함께해 힘을 보탤다. 조영표 김병내 남구청장 총괄선대본부장 등 인사들도 참석해 필승 의지에 힘을 보탤다.

이들은 김 후보의 승리가 곧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천명하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광주지역 5개 기초단체장들과도 정책담담회를 갖고 광주로의 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들

과 통합특별시장의 성공적 출범과 자치구 자치권·재정권 확대, 개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는 구청장들과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협약을 추진하기로 약속하는 등 경선을 앞두고 광주권 세 확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양 후보는 본경선에서 경쟁했던 신정훈 전 후보를 향한 구애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두 후보는 전남 신 전 후보의 나주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 모두 신 후보가 이번 결선에서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본경선을 함께 뛰었던 강기정 전 후보도 신 후보 자택을 찾아 향후 행보를 논의했으며, ‘최선 대신 차선, 최약 대신 최악’이란 메시지를 언급하는 등 결선 과정에서 연대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 전남과 광주를 대표하는 후보들의 맞대결인 만큼 세의 확장성이 이번 결선의 키가 될 것”이라며 “특히 신정훈 전 후보가 결선 진출자 중 누구를 지지할지가 결선 구도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8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수목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 본격화...목포 문화거점 조성

450억 투입 2029년 완공...전시·창작·공연 아우르는 복합공간

전남도가 서남권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인 전남수목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창작과 교육, 공연 기능을 결합한 복합 문화거점으로 조성해 수목예술의 세계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8일 동부지역본부에서 현대

예술과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트센터는 목포 갖바위 문화회관 일원에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011㎡, 지상 4층 규모로 2029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시설은 디지털아트 전시관과 교육체험

실, 창작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2년마다 열리는 국제 수목비엔날레의 핵심 개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수목예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전시 중심 미술관을 넘어 교육·공연·컨벤션 기능까지 갖춘 복합 문화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사업은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서삼석, 알뜰주유소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정산 기준 이견으로 손실...“국민에게 전가될 우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이하 ‘알뜰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알뜰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마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월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만큼, 지난 달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나타나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알뜰 3사는 △한국도로공사 675억원 △농협 479억원 △한국석유공사 200억원 등 총 1354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을 안게 됐다.

서 의원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국도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총 9개 기관에 유류대금 정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알뜰 3사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자체 재원 활용이나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우 기자

시,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 행안부, 실태 3년 연속 우수

광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 우수한 데이터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두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 행정 정책 이행상황을 평가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는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점검한다.

광주시는 이중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노력,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이행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교조 출신 통합교육감 후보들 “반드시 단일화”

장관호·정성홍 입장 발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교조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방장 출신 후보들이 단일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장관호·정성홍 예비후보는 8일 광주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호 후보는 “전남·광주 교육통합이 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광주시민 공천위원회와 전남도민공천위원회가 합의한 방식이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공천위가 확대된 특별시 공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홍 후보도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했



장관호(왼쪽)·정성홍 예비후보는 8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그는 “장 후보와 단일화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단일화 이전에도 유권자들 함께 만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진영이 결합하더라도 지지층이 자동으로 합쳐지는 것은 아닌 만큼 가능한 한 신속한 결단이 중요하다”며 조기 단일화를 촉구했다.

두 후보는 현직 교육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장 후보는 “청렴도 문제와 각종

논란 등으로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우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교육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파이프와 예방 대책 마련은 시·도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 금연구역선 전자담배도 금지...24일부터

액상형도 단속 대상 포함 시, 합동 점검·단속 전개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담배 사용 규제·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에 나선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에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쉐련뿐 아니라 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24일부터 5월15일까지 5개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주·야간 병행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해 담배 규제 사항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정환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담배 규제 강화와 발맞춰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 중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면 ‘통합비용 지원’서 계속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예비비라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하철공사 등으로 재정행정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의 국고 지원이 없으면 통합특별시민들이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애꿎은 피해 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국회 추경안 심의 상황도 좋지 않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안을 상정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소요된 통합예산을 아예 계상하지 않았기에 예결위에서 지역의 건의나 상임위의 증액 의결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민생안보 중심의 ‘정책 추경’인 만큼,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정사상 첫 광역행정통합체 출범을 준비하는 시도는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의 불편이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